

2024. 4. 16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

친환경건물과장	이주영	02-2133-3590
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환경마일리지팀장	조경방	02-2133-3601
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누리집	ecomileage.seoul.go.kr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'에코마일리지(승용차)' 스마트하게... 적립 더 손쉽고 편리해진다

- 서울시-현대차·기아 협력, 4.16.(화)부터 앱 통해 주행거리 데이터 자동 연계
- 계기판 수기등록 절차 개선... '에코마일리지(승용차)' 현재 15만여 대 활동 중
- 친환경 운전습관 평가해 차등 마일리지 주는 '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' 시범운영
- 시 "마일리지 적립 절차 개선통해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활발해지길 기대"

서울시가 현대차·기아와 협력하여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'에코마일리지(승용차)'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개선한다. 또 친환경 운전 습관을 점수화해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주는 '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'도 도입한다.

서울시는 4.16.(화)부터 현대차·기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'에코마일리지(승용차)' 주행거리 데이터가 연계돼 보다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. 기존에 주행거리를 직접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대폭 개선되는 것이다.

○ 지금까지는 에코마일리지(승용차) 가입자가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최초·실적 주행거리가 나온 운행계기판

을 사진으로 직접 촬영해 누리집에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▲마이현대 ▲마이기아 ▲마이제네시스 앱 ‘드라이빙 인사이트 서비스’에서 주행거리 데이터 연계 및 실적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.

- 아울러 시는 급가속·급제동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평가, 점수를 매겨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‘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’도 도입한다. 우선 커넥티드카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, 마일리지는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.
 - 시범 운영은 현대차·기아 커넥티드카 ‘안전운전 서비스 가입차량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, 향후 커넥티드 기능 등을 갖춰 운전 점수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 - 현대차·기아 드라이빙 인사이트 안전운전 점수가 85점 이상인 회원에 3천 마일리지(3천원 상당), 95점 이상인 회원에 5천 마일리지(5천원 상당)를 지급할 계획이다.

※ 커넥티드카(스마트카) : 자동차에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돼 스마트폰 앱(APP)을 활용해 차량에 기록되는 디지털 주행·성능정보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차량제어 및 관리가 가능한 자동차

-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‘에코마일리지(승용차)’는 1년 단위로 감축률(%)과 감축량(km)을 평가, 가입 1년 후부터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마일리지(7만원 상당)를 받을 수 있다. 2017년 도입돼 지금까지 누적 가입 24만여 대, 현재(‘24.3.)는 15만여 대가 활동 중이다.
 - 마일리지는 이택스·아파트 관리비 등 납부, 온누리·도서문화 등

상품권, 서울사랑상품권 전환 등을 통해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기부도 가능하다.

- 시는 ‘에코마일리지(승용차)’ 주행거리 데이터 연계, ‘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’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“이번 주행거리 데이터 연계를 통해 에코마일리지(승용차) 주행거리 등록이 편리해진 만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새롭게 도입되는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 통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운전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